

지역 소식 통

부안군자봉센터 기쁨두배
봉사단, 양파김치 나눔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귀) 기쁨두배봉사단(회장 김연자)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조리실에서 어르신 섬김 양파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기쁨두배봉사단원 20여명이 부안의 특산물인 해풍 양파를 이용한 양파김치를 정성스럽게 담아 관내 홀몸 어르신들과 청소년 등 200세대에 전달했다.

기쁨두배봉사단은 13년째 매월 제철 재료를 이용한 밑반찬을 만들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설 명절에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모아 명절 음식인 삼색전을 부쳐 지역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부안군자봉봉사센터와 협업체를 통해 반찬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을 알뜰히 챙기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서비스사업 본격 시행

정읍시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5월부터 '찾아가는 수돗물안심서비스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수돗물안심서비스사업'은 가정 내 수돗물의 이상 유무를 시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시민 누구나 신청하면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시켜 준다.

검사항목은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 △중금속(납, 구리) 등으로 현장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내와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사는 '물사랑누리집(www.ilovewater.or.kr)' 또는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363-539-6468)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의 갯벌’ CEPA 국제심포지엄

고창군, 19일까지 상하농원 등서 갯벌 보전 관리방안 논의 · 국제적 협력 다짐

고창군이 17~19일 고창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와 고창갯벌 일원에서 '한국의 갯벌-CEPA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고창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 협력을 다짐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심포지엄에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RSPB(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함께했다.

17일 열린 개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 제니퍼 조지(Jennifer George) EAAFP 대표, 안 바오화(Yan Baohua) 중국 맹그로브재단 사무총장, 아나 스제진스키(Anja Szczesinski) IWSS(국제외탄해학교)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갯벌'의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어 열린 본행사에서 △IUCN 아시아



아시아사무소의 올리비아 사소(Olivia Chaso) 담당관 △동아시아습지지역센터의 서승오 센터장 등이 '국제기구 CEPA 전략과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또 △와덴해 세계유산센터의 버나드 라우하트(Bernard Rauhut) 사무국장 △RSPB의 제프 큐(Jeffrey John Kew) 담당관 등이 '해의 방문자센터의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국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의 갯벌'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고창갯벌 현장견학'을 통해 고창갯벌과 섬(죽도)에서의 탐조활동, 저서생물 관찰 등 갯벌을 직접 경험하며, 세계자연유산으로서 고창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한국의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제3회 고창 벚꽃축제 평가보고회 열어

20만명 방문, 축제 대성공

고창군이 지난 15일 제3회 고창 벚꽃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와 아쉬운 점을 되짚으며 내년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식 고창군부군수를 비롯해 축제 운영 실무자, 관계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축제의 여러 분야에서 함께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축제 기간 동안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은 지난 4~6일까지 3일간, 기더렸다. 봄을 슬로건으로 제3회 고창 벚꽃축제를 개최했다.

올해 축제는 4월 5일 토요일에 내린 갑작스러운 비와 축제 기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SK텔레콤 빅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30분 이상 축제장에 체류한 방문객 수가 약 20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보고회에서는 축제의 운영 과정에 대한 실무 보고와 함께, 교통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피드백이 활발히 오갔다. 특히 비가 내린 주말 일정과 낮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것은, 고창 벚꽃축제가 이미 지역의 대표 봄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로 평가됐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불안한 정국으로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가 걱정되었지만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전북 시장 · 군수협의회 회의 부안 개최

지역 현안 · 해결 방안 모색 활발한 논의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시장 · 군수협의회 회의가 지난 17일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협의화장인 정현을 익산시장과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도내 시장 · 군수들이 모여 지역 현안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 회신 결과를 비롯해 전주~김천 간 철도 확충 동화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건의 등 12개 안건을 심의 · 의결, 이를 전북자치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권익현 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잇따른 산불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장 경기 불황 등 소상공인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도내 시장 · 군수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경제 불황 타개 및 지역 발전 도약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염산 유출 사고’ 재발 막는다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정읍시가 지난해 발생한 염산 누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지역 화학사고 대응 및 대비 태세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정읍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위원장인 유호연 부시장과 전북지방환경청 시의원, 정읍소방서, 화학 · 환경 · 보건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위원들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북면 제3산업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 사고의 현황과 향후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당시 사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염산 약 9톤이 누출돼 인근 장항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시는 염산이 동진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1.7km 구간에 방제둑 4곳을 긴급 설치하고 3일간 오염된 폐수 1117

톤을 수거 · 처리하며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신속히 진화했다.

이후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4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난 1월 중 완료했고, 누출 · 유출 감지 경보 설비 설치 여부 등 시설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과 3월 장항천 토양의 퇴적물을 분석해 염산의 중화돼 안정화됐음을 확인했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장항천의 어류 생태조사를 통해 환경 영향 여부를 세심히 관찰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실질적 사고 예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한 교육 실시 필요성, 유해화학사고 대응체계 보완과 행동조치 매뉴얼 재정비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고부천 유채꽃길 색다른 산책 코스 각광

정읍시 고부면 고부천이 활짝 핀 유채꽃으로 물들며 봄을 맞아 색다른 산책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고부천 유채꽃길은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밭이 강변을 따라 노랗게 물들며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경관을 만들어낸다. 특히, 고부천을 따라 조성된 꽃길은 잘 정비된 산책로와 함께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봄나들이를 선사하고 있다.

고부천 유채꽃길에서는 노란 유채꽃이 양쪽으로 펼쳐진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꽃 사이를 거닐며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또 꽃길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인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부천 유채꽃길은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유채꽃길이 강을 따라 아름답게 곡선을 이루며 자연과 어우러져 한층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시민정원사 정원 가꾸기 활동 시작

정읍 시민정원사들이 봄을 맞아 실습정원에 봄꽃을 식재하며 시민정원 가꾸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읍시는 2019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실시해 수료한 시민정원사들은 정원 가꾸기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정원 가꾸기, 공공기관 조경수 전지, 겨울철 나무 옷입히기 등 시민 생활공간 속에서 식물과 함께하는 정원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시민정원 가꾸기는 매해 봉사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시

에서 제공한 실습정원 6개소를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들이 각 정원에 봄꽃과 꽃나무를 심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왔다.

올해는 △정읍고 앞 사색정원(정읍시 594) △단풍생태공원(내장동 364-2) △내장호 야생화동산(성암동 산25-3) 등 주요 실습정원에 송엽국, 가자니아, 팔꽃나무 등을 식재했다. 봄의 생기를 머금은 정원은 시민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